SECTOR UPDATE

2025. 9. 11

EV/모빌리티팀

임은영 팀장
esther.yim@samsung.com

김현지 Research Associate
hyunzi.kim@samsung.com

▶ **종목 정보**

현대차 (005380 KS, 220,500)		
목표주가	285,000원	29.3%
BUY		
기아 (000270 KS, 106,000)		
목표주가	140,000원	32.1%
BUY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자동차 (OVERWEIGHT)

7월 유럽 전기차: 중국 발 가격 경쟁 우려 완화

- 7월 유럽 전기차 수요는 34.3만 대(+46.8%YoY)기록. 총 수요는 108.5만 대(+5.9%YoY)로 회복하며, 전기차 침투율은 31.6% 기록.
- 테슬라 M/S가 전월 대비 -6.2%p 다시 급감한 가운데, VW의 M/S 상승 폭이 +2.8%p로 가장 컸고, 현대차/기아와 BYD의 M/S는 +1.4%p 및 +0.3%p 증가.
- 중국 발 가격 경쟁이 소강상태로 진입하면서, 활발한 중저가 신차 출시가 M/S 확대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극.

WHAT'S THE STORY?

전기차 수요 성장세 확대: 중국의 전기차 성장세는 낮아지고 있는 반면, 주요국의 전기차 육성 정책 도입에 힘입어 유럽의 성장세는 가속화.

- **7월 유럽 전기차 수요:** 34.3만 대(+46.8%YoY)로 침투율 31.6% 기록. 전체 유럽 시장 수요는 108.5만 대(+5.9%YoY).
- **미국 관세 정책 이후 치열해진 유럽 시장:** 완성차업체는 중국에서는 중국 업체에게 밀리고, 미국에서는 관세 영향으로 수익성 담보가 어려워짐. 이에 따라 유럽 시장의 M/S 경쟁이 치열. 특히 VW, 스텔란티스 등 유럽 완성차업체 중심으로 인센티브 증가. 현대차/기아의 유럽 시장의 수익성은 high single로 미국 시장 다음으로 높음. 기아는 중저가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 중이며, 현대차는 2026년 초에 아이오닉 2 출시 예정

유럽 주요 국가의 전기차 수요 부양책 시작: 독일, 영국에 이어 프랑스도 도입

- **2026년, 각국의 전기차 수요 정책 법제화 예상:** 2025년 말까지 법인 플릿 차량 전기화를 위한 입법 제안 발표 예정. 유럽은 법인 차량 비중이 신차 수요의 60%로 가장 효과가 클 법안. 2030년까지 신규 구매 차량의 100% 전기차 구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10만 대의 전기차 수요 효과 예상. 이는 2024년 전기차 수요의 65% 수준.
- **프랑스 저소득 가구 대상 전기차 리스 제도 재도입:**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전기차 시장인 프랑스 또한 9월 30일부터 저소득 가구 대상 전기차 리스 제도 재도입 예정. 프랑스의 소셜 리스 제도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한 달 만에 예산(6억 5천만 유로) 조기 소진으로 중단된 바 있음. 당시 해당 정책으로 약 한달 간 5만 대 리스 수요를 견인. 프랑스의 7월 누적 전기차 수요는 24.3만대(-11.5%YoY)로, 정부 정책에 힘입어 하반기 수요 성장 재개 전망.
- **영국 전기차 구매 보조금 재도입:** 영국은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전기차 시장. 7억 파운드의 구매 보조금과 6300만 파운드의 충전 인프라 투자, 생산 밸류체인 보조금 예산 발표.

(다음 페이지에 계속)

- **독일, 2025년 7월부터 대대적인 법인 전기차 육성 정책 실행:** 1)2025년 7월~2028년 말까지 법인 전기차에 대해 조기 감가상각(첫해 40%, 둘째 해 24% 등 총 6년에 걸쳐 상각) 허용. 2)법인 전기차 구입 시 차량 가격의 40%까지 세액 공제(최대 9.5만 유로) 3) 2035년까지 전기차에 대해 자동차세 면제. 4) 법인 전기차를 임직원 개인이 사용할 경우, 차량 가격의 0.25%만 소득세로 부과. 내연기관차의 경우 1%. 유럽은 법인이 차량을 구입하여, 임직원이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5) 그 외 개인 구입 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 정책을 검토 중.

중국 발 가격경쟁 우려 완화 예상: 가격 경쟁을 이끌던 BYD의 감산과 판매 목표 하향

- **BYD, 감산 시작과 판매목표 하향**: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는 1) 부품 구매 대금 지급일 축소(127일 → 60일이내), 2) 신차판매 후 6개월 내 중고차로 판매 금지 조치. 이에 따라 밀어내기 판매가 불가능해지면서, BYD는 중국 공장을 3교대에서 2교대로 전환. 감산 영향으로, 7월 판매는 26.3만대로 -13.6% 감소. 2025년 판매 목표를 5.5백만대에서 4.6백만대로 -16% 하향 조정. 월 판매 실적 35~36만대(수출 포함)를 감안할 때, 현실적인 판매대수는 4.3백만대(+7.5%YoY).

  중국공장 가동률 유지를 위해, 헝가리 공장 가동을 2025년 10월에 2026년으로 지연. 중국 내 BEP에 가까운 수익성을 감안할 때, 해외시장에서 출혈 경쟁은 어려운 상황.

- **유럽 전기차 시장, 중국 전기차 M/S 증가도 BYD가 중심:** 2024년 11월에 상계관세를 부과했으나, 중국업체의 M/S는 19.6%로 증가하여, VW 다음으로 두번째 지위, 그러나 업체별로는 BYD가 고성장 중이고, Geely와 SAIC은 감소세. Geely와 SAIC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 유럽업체(Geely는 스웨덴 브랜드인 Volvo, SAIC은 영국브랜드인 MG)를 인수하면서, 전기차 초기 성장기에 유럽 브랜드 Legacy 효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유지했음. 이후 VW, 기아 등 주요업체들이 중저가 전기차를 출시하고, Volvo와 MG는 신차가 없어 점유율 하락. 유럽시장에서도 BYD가 중국 전기차의 성장을 견인 중. BYD는 유럽에서 중국 대비 3배 가까이 높은 가격으로 판매 중이며, 중국 내의 낮은 수익성을 감안할 때, 유럽에서는 출혈 경쟁이 어려울 전망.

업체별 실적: 테슬라는 6월 M/S 회복분을 다시 반납. 나머지 업체는 전월 대비 증가

- **테슬라 M/S 4.0%(-2.6%pYoY)로 다시 위축:** 7월 판매 13,586대(-11.2%YoY)로 전월 회복했던 판매가 다시 급감. 특히 프랑스/독일/영국 합산 판매는 3,403대(-78%MoM/-49%YoY)로 감소한 반면, BYD가 5,114대(+276%YoY)로 테슬라 판매를 추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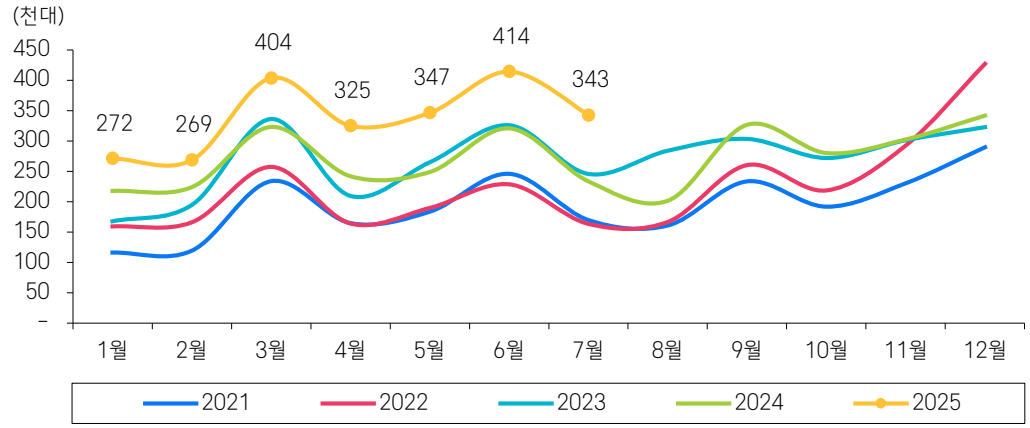
  한편, 9월 5일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에게 두 번째 스톡옵션을 부여. 시총(최대 8.5조 달러) 및 사업 성과(차량 누적 2천만 대 판매, 로봇 1백만 대 양산, 로보택시 1백만 대 운영)을 조건으로, 보상안 규모는 최대 1조 달러(지분율 12%). 해당 안은 11월 6일 주총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으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있으나 뚜렷한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은 긍정적.

- **VW, 8월까지 지속될 기저 효과:** 7월 판매 9.3만 대(+97%YoY) 및 M/S 27.0%(+6.9%pYoY). 테슬라에 대한 반발로 VW의 ID.3와 ID.4 판매 호조와, 전년도 8월까지 판매가 부진했던 것의 기저 효과. VW은 2.5만 유로 저가 전기차인 ID.2(LFP 배터리 장착)를 2026년 초에 출시할 계획. VW은 중국 부진을 벗어나기 위해 샤오펑의 자율주행 기술을 라이센싱해서 전기차에 적용하기로 결정. 중국 외 시장에서도 샤오펑의 기술이 적용될 가능성 높음.

- **BYD, 7월 +244%YoY 증가:** 7월 판매는 21,736대(+243.7%YoY)로 M/S 6.3%(+3.6%pYoY). 전월 대비 M/S는 +0.2%p 증가. BYD는 7월부터 중국 내수 시장에서 판매 둔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7~8월은 약 -20%YoY의 감소세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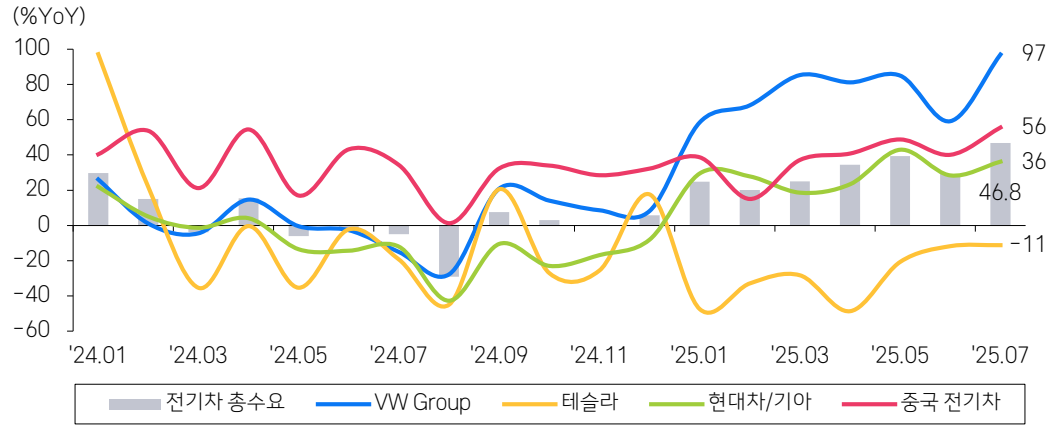
  중국 국내 공장의 Oversupply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 증가에 집중하고 있으며, 수출 대수는 8만대 수준으로 +100%YoY 수준의 고성장 지속 중. 유럽 시장의 전략적 거점이었던 헝가리 공장(Capa 15만대)은 2025년 10월에서 2026년으로 양산을 연기한 반면, 에너지 비용과 인건비가 싼 터키 공장(Capa 15만대) 가동을 앞당기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 중국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원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중국 공장 가동률 향상을 위해 우선 해외 공장을 CKD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2028년부터 유럽 판매 전량을 현지 생산으로 전환할 예정.
- **현대차/기아, 유럽향 전기차 수출 증가:** 8월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54억 달러로(+8.5%YoY), 세 달 연속 회복세. 4월, 5월에 미국향 수출 감소로 전체 수출액이 65억 달러(-3.9%YoY), 62억 달러(-4.4%YoY)로 감소를 기록한 후, 6월부터 유럽 전기차 수출 증가로 회복세 전환. 미국 메타플랜트로 아이오닉 5, 아이오닉 9가 이관되고, 기아 조지아 공장으로 EV6, EV9이 이관되면서, 한국 공장의 미국향 수출 감소. 이를 유럽향 전기차 수출이 만회 중.
- **기아 하반기에 EV4와 EV5 출시 예정:** 7월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M/S는 7.8% (-0.6%pYoY). 전월 대비 M/S는 +1.4%p 증가. 현대차 14,258대(+60%YoY), 기아 12,370대(+16%YoY) 기록. 현대차는 캐스퍼EV(2024년 12월), 기아는 EV3(2024년 10월) 출시로 판매가 증가세이나, 수요 증가세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현대차는 6월부터 아이오닉9 출시, 기아는 8월부터 EV4를 유럽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생산 예정. EV5와 PV5는 10월부터 한국에서 수출 예정. 2026년 2월에는 EV2출시 예정. EV3의 가격은 58.3Kwh 기본형이 3.6만 유로. EV2의 가격은 2만 유로 후반 수준 예상.

유럽(EU+동유럽): 전기차 수요 월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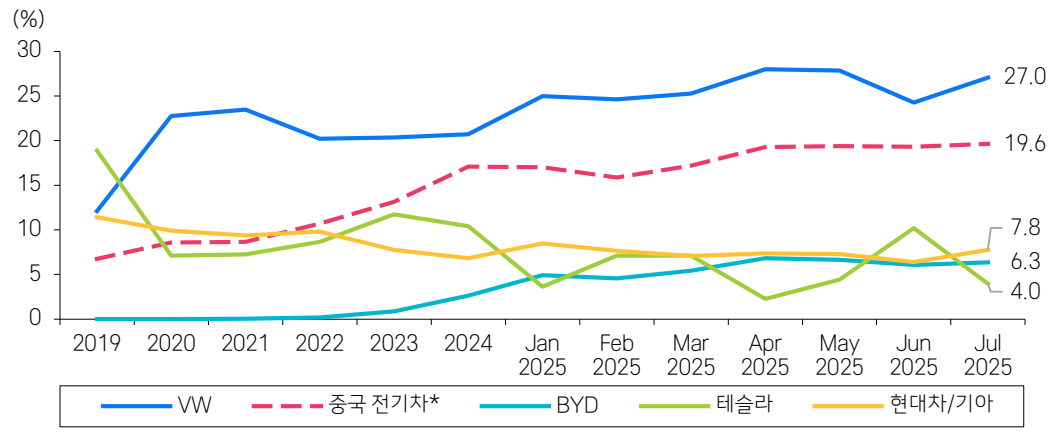
자료: EV-Volumes, 삼성증권

유럽(EU+동유럽): YoY 판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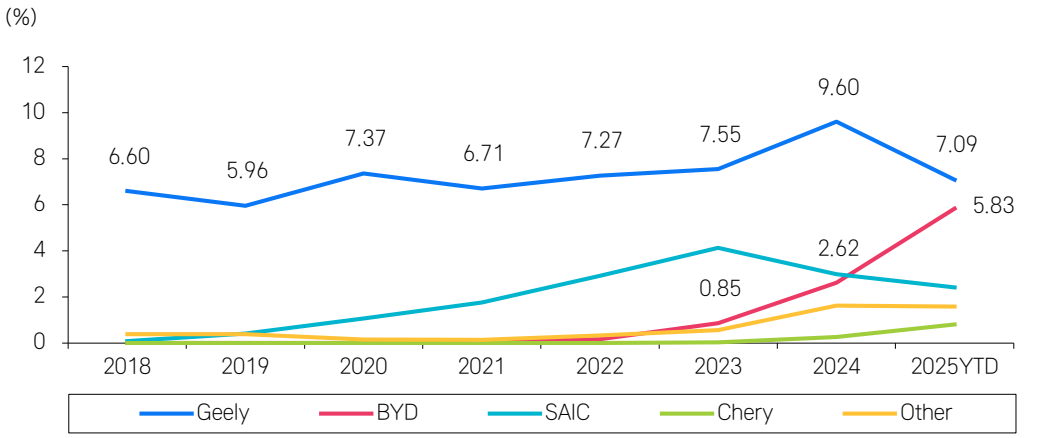
자료: Marklines, 삼성증권

유럽 전기차시장: 주요 업체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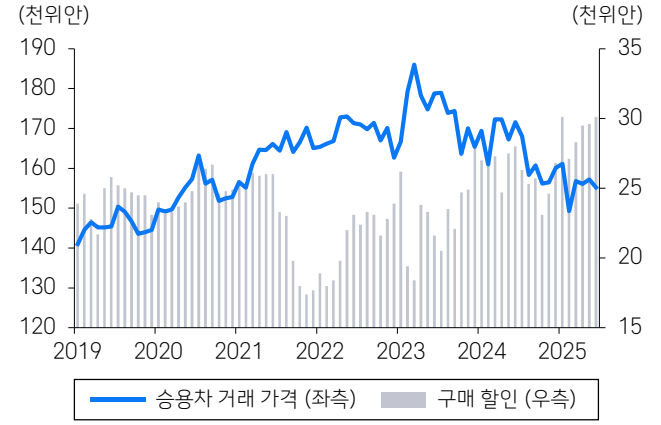
참고: *BYD 포함
자료: EV-Volumes, 삼성증권

유럽 전기차 시장: 중국업체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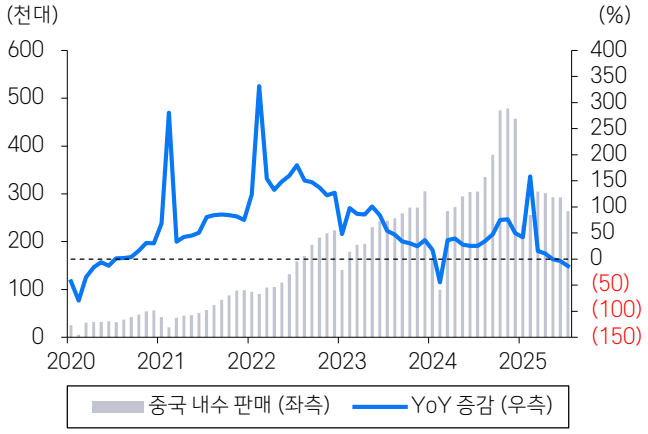
자료: EV-Volumes, 삼성증권

중국 시장: 승용차 거래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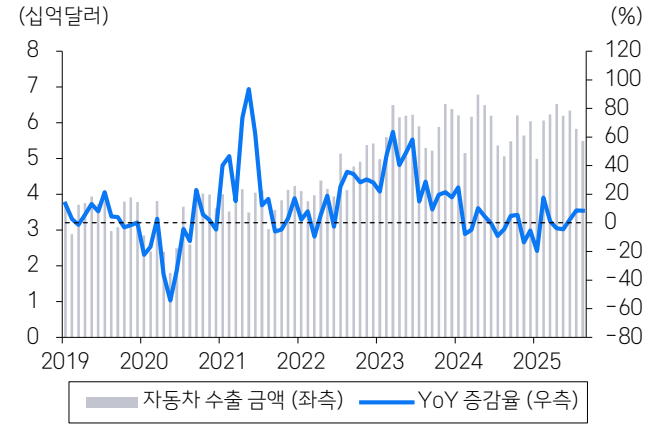
자료: Wind, 삼성증권

BYD: 중국 내수 판매 두 달 연속 감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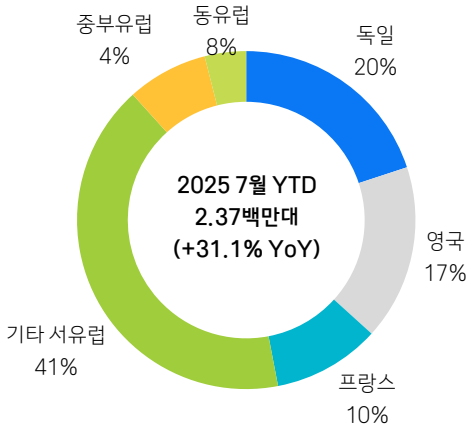
자료: CPCA, 삼성증권

한국: 월별 자동차 수출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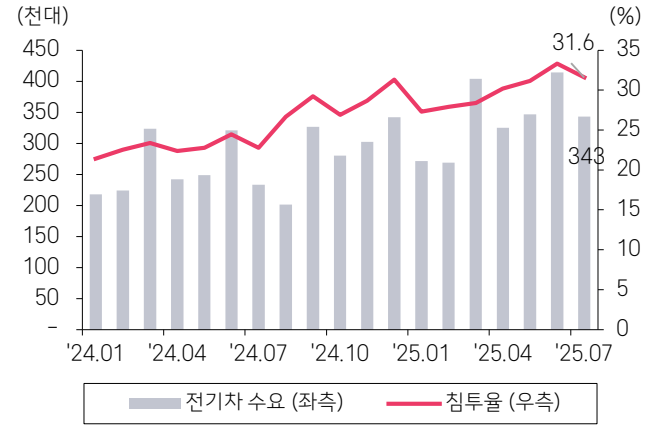
자료: CEIC, 삼성증권

유럽: 국가별 전기차 수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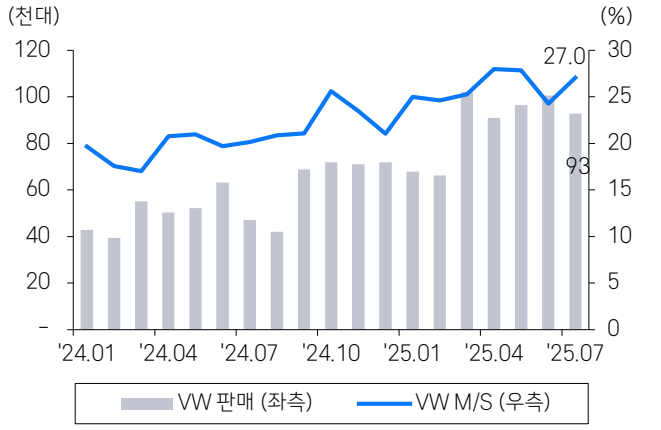
자료: EV-Volumes, 삼성증권

유럽 전기차 수요 및 침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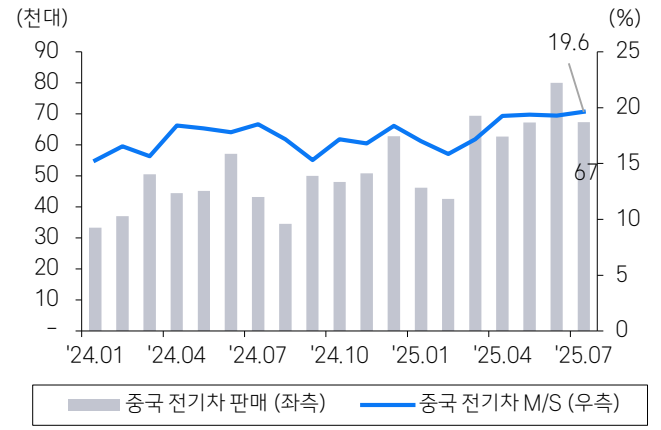
자료: EV-Volumes, 삼성증권

유럽 시장: VW 전기차 판매 및 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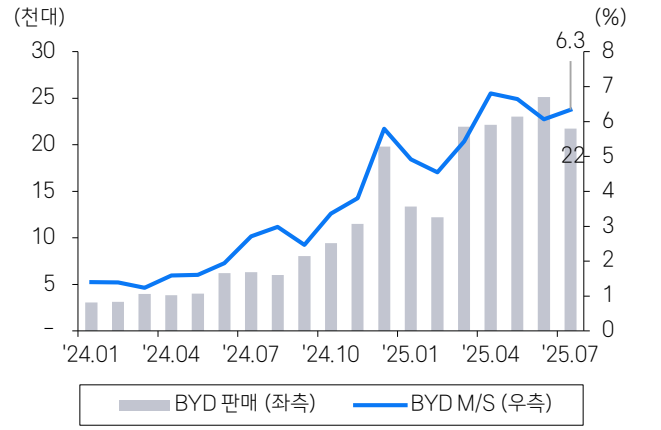
자료: EV-Volumes, 삼성증권

유럽 시장: 중국 전기차 판매 및 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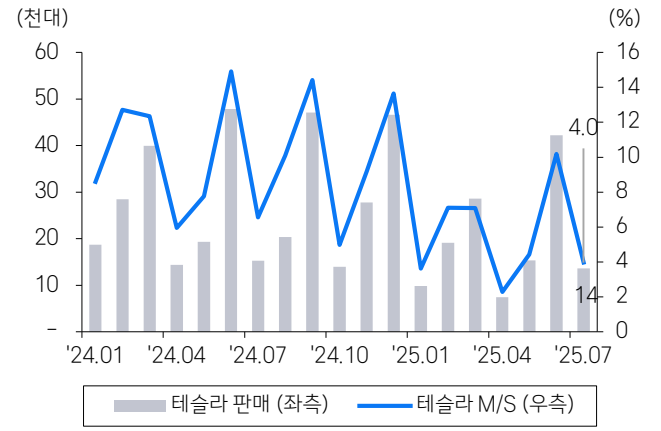
자료: EV-Volumes, 삼성증권

유럽 시장: BYD 전기차 판매 및 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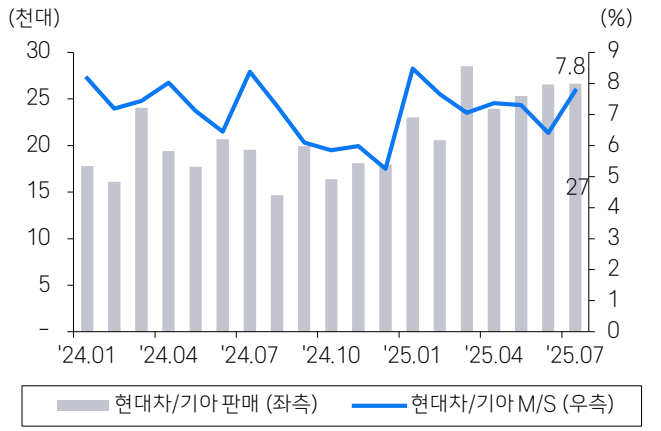
자료: EV-Volumes, 삼성증권

유럽 시장: 테슬라 판매 및 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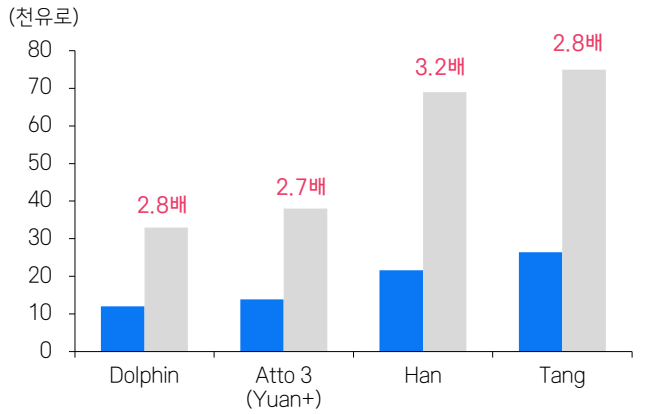
자료: EV-Volumes, 삼성증권

유럽 시장: 현대차/기아 판매 및 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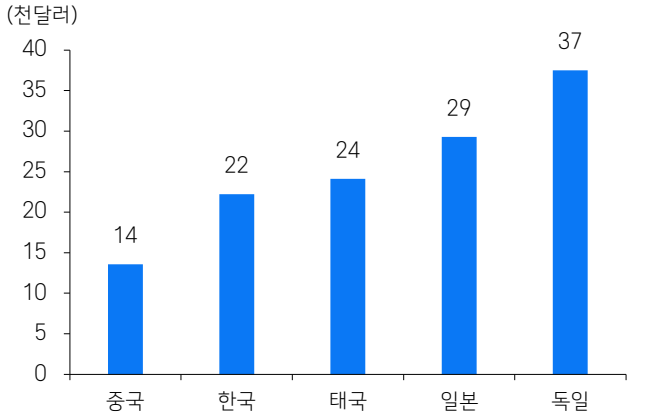
자료: EV-Volumes, 삼성증권

BYD 대표 모델 가격: 중국* vs 유럽



참고: * 중국 가격을 유로가치로 환산 (1CNY=0.12EUR), 유럽은 독일 시장 기준
자료: BYD, 삼성증권

BYD: 시장별 Atto 3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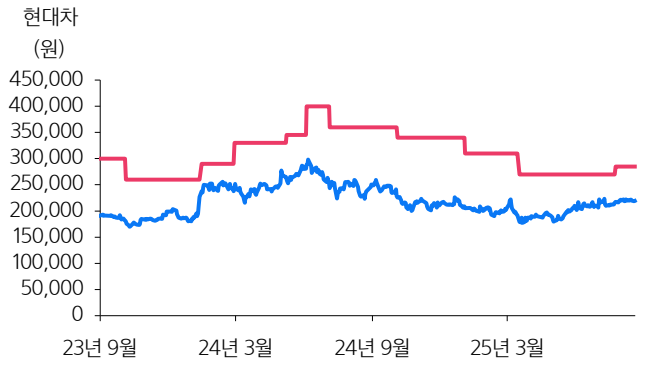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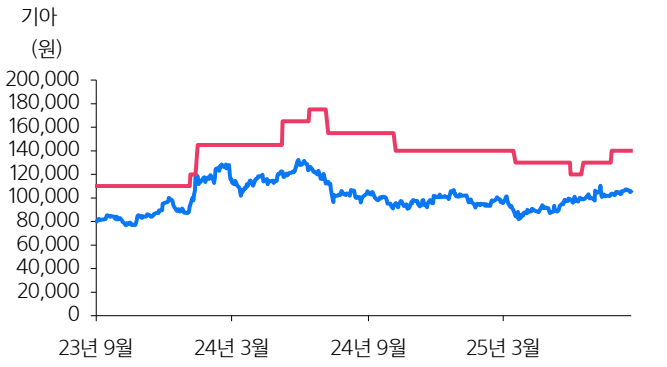
참고: 2025년 4월 17일 환율 기준
자료: BYD,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5년 9월 10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5년 9월 10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2년간 목표주가 변경 추이





최근 2년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 (수정주가 기준)

현대차											
일 자	2023/4/26	10/26	2024/2/5	3/20	5/29	6/25	7/26	10/25	2025/1/24	4/7	8/14
투자의견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TP (원)	300000	260000	290000	330000	345000	400000	360000	340000	310000	270000	285000
괴리율 (평균)	-34.65	-28.49	-15.25	-26.19	-21.52	-31.63	-32.30	-37.27	-34.90	-26.06	
괴리율 (최대or최소)	-30.00	-12.69	-11.90	-16.06	-16.96	-25.50	-28.06	-33.38	-28.39	-17.41	

기아											
일 자	2023/8/4	2024/1/26	2/5	5/29	7/4	7/29	10/28	2025/4/7	6/20	7/7	8/14
투자의견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TP (원)	110000	120000	145000	165000	175000	155000	140000	130000	120000	130000	140000
괴리율 (평균)	-24.00	-12.23	-19.81	-24.20	-31.41	-34.54	-30.66	-30.49	-17.88	-21.50	
괴리율 (최대or최소)	-9.09	-0.42	-11.38	-19.82	-27.83	-27.68	-23.79	-23.38	-15.75	-15.08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삼성증권은 기업 및 산업에 대한 투자등급을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2023년 7월 27일부로 기업 투자 등급 기준 변경

기업

BUY (매수)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15% 이상 그리고 업종 내 상대매력도가 평균 대비 높은 수준
HOLD (중립)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15%~ 15% 내외
SELL (매도)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15% 이하

산업

OVERWEIGHT (비중확대)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5% 이상 상승 예상
NEUTRAL (중립)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과 유사한 수준 (±5%) 예상
UNDERWEIGHT (비중축소)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5% 이상 하락 예상

최근 1년간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비율 2025.06.30 기준
매수(81.8%)·중립(18.2%)·매도(0%)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NCSI KS-SQI KCSI KCPI cc 소비자중심 Best Korea Brands 2024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